

수학여행은 순천

불거리·생태 체험 가득...수학여행지 급부상 제주교육청 교사 24명 사전답사·팸투어 인기

순천만국가정원이 최고 수학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이하 조직위)는 제주교육청과 초·중고 교사들이 '2023년도 수학여행'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답사차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등 수학여행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교육청 직원과 초·중고 교사 24명이 동행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달라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설명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수학여행 코스와 생태체험 등을 소개해 박람회 기간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조직위는 지금까지 25개 기관을 방문하고 13회 651명에 대해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전답사에 참가한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순천시민들의 노력과 국가정원 조성 과정,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대된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제주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현장에



제주교육청과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9일 '2023년도 수학여행'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답사차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했다. <순천시 제공>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호남권 유일 직업체협관인 순천만잡월드와 호남호국기념관 등 전국 최고의 생태와 역사문화 체험학습이 가능한 수학여행의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교육청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 단체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삼니다'를 주제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전역에서 개최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낭만여행은 여수

13~14일 낭도서 낭만 페스티벌 개최 생태 탐험대·수산물 경매·보물 찾기 등

여수시가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찾아오고 싶은 섬 낭도에서 '낭만 낭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여수시와 (사)여수시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생태녹색관광'을 주제로 주민 참여형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첫 날인 13일에는 오후 3시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수산물 경매 체험, 생태 탐험대, 낭도 젓새막 걸리를 찾아라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7시 30분에는 개막식과 함께 길놀이, 퓨전타악, 클래식과 팝페라 공연, 비비각시 가면과 티 등 풍성한 공연행사가 흥을 돋우게 된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 먹거리 장터도 열려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낭도의 낭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해안 웰니스 명상에 이어 보물을 찾아라, 생태 탐험대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동선을 일원화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발열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안가에서 진행되는 만큼 참여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인근 20m 이내에 차단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10여명을 배치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이 그동안 낭도에서 진행한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섬 주민에게는 활력을,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낭만 페스티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낭도에서는 올해까지 총 사업비 4억 5000여만원이 투입돼 '낭만마실(당일·1박2일 여행)'과 '주민생태관광해설사 육성', '주민협업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村캉스'는 광양

형제의병장 등 9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농산물 수확·도자기 빚기·전통음식 만들기

광양시가 일 년에 딱 한 번뿐인 여름휴가를 겨냥해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촌캉스(村+캉스)를 제안하고 나섰다.

시는 농산물 수확, 마을 탐방, 천문, 도자기, 아트자전거, 천연염색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숙박, 시골 밥상 등 휴양까지 만족시키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에는 섬진강골들, 덕촌(봉강햇살촌), 형제의병장, 하조산달팽이, 도선곡사, 백운산, 백학동, 고사, 메아리 등 9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다.

광양 최동단 섬진강골들마을은 천연염색, 도자기, 목공예, 아트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한편의 작은미술관에서는 도자,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오브제 표형된 '섬진강에 스미다'전이 열리고 있다.

성불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는 봉강 햇살촌은 숙박, 세미나실, 족구장 등을 갖췄으며 물놀이, 꽃차 만들기, 녹차 체험 등과 함께 어린 시절 교정의 추억을 더듬어볼 수 있는 곳이다.

형제의병장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강희보·희열 형제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으로 사당 탐방,

농산물 수확, 백운산 생태체험 등이 가득하다.

백운산 도솔봉 아래 하조산달팽이마을은 산사의 아침 산책, 피자 만들기, 무설탕 건강잼 만들기, 해달별 천문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도선곡사마을은 신라시대 풍수지리 대가 도선이 35년간 머물렀던 옥룡사가 있던 곳으로 전통 손두부, 광양매실 향토음식, 부채 수목화, 아로마 훈증 테라피 등이 마련됐다.

전남도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면 축제로 연다

9월30일 개막...추모 공연·경연대회 등 진행

보성군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군중 운집 가능성이 큰 대규모 공연은 진행하지 않고 추모 공연, 경연대회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무관중 경연대회로 진행했던 2021년과 달리 올해는 관중과 함께하는 경연 대회로 진행된다. 청중평가단 인가상을 신설해 청중의 참여도를 높인다. 명창부 본선은 기존 청중평가단 5점 배점을 없애고, 전문 심사위원의 점수로만 평가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뉘며 명창·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

부 종합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명창부 판소리 본선은 공영 TV를 통해 방송 송출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061-852-2621)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정권진, 성우향, 조상현, 성장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매년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를 개최해 전국 경연 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 데 힘쓰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도 상생 협약

소상공인 지원 협력·사회공헌 활동 전개키로

곡성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농도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 로컬푸드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도 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함께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 외에도 지역 농산물 구매, 농가 체험 활동을 통한 일손 돕기, 재해 위기 시 대응 협력, 양 기관 사업 및 제도 홍보 등이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공단 직원들이 곡성군의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농가를 연계해 주고, 공단이 진행하는 농도 상생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애



로사함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 천은사, 27일 가수 양수경과 여름 음악회

구례에서 양수경(사진)과 함께하는 음악공원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는 오는 27일 구례 천은사에서 양수경과 함께하는 천은사 여름음악회 '사랑하세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은사 여름음악회 '사랑하세요'는 2022년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가수 양수경이 진행을 하며 라이브밴드 연주에 맞춰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 등 젊은 날의 기억을 상기시켜 줄 히트곡을 부를 예정이다.

최근 천은사는 수행루를 비롯한 사찰 주요시설을 단장하고, 천은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조성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인연 지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한 이번 음악

회가 심신이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안을 드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은사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음악·전시회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